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07

## 4차 산업혁명의 요람에서 만난 다양성

김서경 뱅크샐러드 UX 리서처

39

## 자기다움과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공감 교육

박보혜 앤파씨 대표, 서현신 진저티프로젝트 이사, 신현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4차 산업혁명의  
요람에서 만난 다양성

## 김서경

뱅크샐러드 UX 리서처

워싱턴주의 시애틀은 실리콘밸리와 쌍벽을 이루는 미국 글로벌 IT 기업의 요람이다. 여기에서 나고 자란 빌 게이츠가 고향으로 돌아와 사업체를 차린 이래, 숲과 바다에 파묻힌 이 작은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로 부상했다. 본래 고기를 잡거나 나무를 베어 팔지 않으면 먹고 살 길 없던 곳이라, 시애틀에서 가장 큰 학교이자 내 모교이기도 한 워싱턴주립대에는 아직도 산림학과(forestry)와 어업학과(fishery)가 남아 있다. 겨울이면 추적추적 비 내리는 우중충한 날씨가 겹쳐, IT 기업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렇게나 타주로 떠나는 주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니 시애틀이 융성하게 된 계기는 사람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유럽, 인도와 중동 일대의 뛰어난 인재들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본사 등지에서 일하기 위해 몰려든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배경을 지녔다. 나이와 외모가 다르고, 나고 자란 문화가 다르며, 성 정체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기업에서 일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수적이다.



아마존 시애틀 본사의 '스피어(Sphere)'와 피크닉을 나온 시민들  
출처: 저자 제공

실제로 시애틀의 문화는 이들 IT 기업이 융성하는 터전에 걸맞은 토양이 된다. 시애틀은 교육 수준이 높고 지적인 도시로서 전미에서 독서량이 가장 많을뿐더러,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정보대학(The Information School)으로 재탄생한 워싱턴주립대의 도서관학과 역시 전미에서 2위로 꼽히는 명문이다. 주민들의 성향은 진보적이며, 미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 다양성에 열려 있다. 매년 6월에 열리는 프리몬트 하지 퍼레이드(Fremont Solstice Parade)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방식으로 관계 맺는 것을 기쁘게 기리는 축제다. 거리에는 무지개 깃발과 꽃목걸이가 넘치고 성소수자와 이성애자 모두가 함께 어울려 축제를 즐긴다.

이처럼 일상에 다양성이 깊이 배어든 도시인 시애틀에서 생활하면서,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닫게 된 다양성의 폭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이어 내 자신이 미국 사회의 소수자(minority)로서 경험한 다양성의 깊이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

## 워싱턴주립대에서 만난 다양성의 폭

### 선생님들 - 성 정체성과 가정 배경

한국에서 ‘교수님’이라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 요즘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가 새내기일 무렵 마음속 교수님의 대표적 인 이미지는 양복을 차려입은 한국인 중년 남성이었다. 아마 머릿속의 그분은 50에서 60대쯤으로, 비슷한 연배의 아내와 갓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있을 것이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어른’ 대접을 받는 이성애자 남성으로서, 한국인 ‘정상 가족’의 일원으로 나고 자라 또 다른 정상 가족을 꾸려 낸 가장일 것이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워싱턴주립대에 첫발을 디딘 지 얼마 안 되어 박살이 났다. 입학식 때 처음 본 총장님은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여성 레즈비언으로, 여성인 파트너의 팔짱을 끼고 등장했다. (본토의 미국인이라 할 때 흔히 떠올리는) 백인 앵글로색슨 남성이 아닌, 성소수자이자 유색인종 여성이 명성 있는 대학의 총장일 수 있다니! 2022년의 한국에서는 이

런 사례가 가능할까? 가령 태국이나 필리핀 출신의 레즈비언 여성이 흔히 말하는 ‘스카이’의 총장으로 임명된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학교는 물론, 언론이며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은 상상하기 어렵다.



어느 맑은 날 워싱턴주립대의 정보대학과 그 앞의 드럼헬러(Drumheller) 분수  
출처: 저자 제공

비단 총장님뿐 아니라, 오고 가며 마주치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성소수자가 있었다. 모든 교수님이 돌아가며 갖 입학한 학생들과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파이어사이드 챗(fireside chat)’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유난히 맵시 있게 옷을 차려입은 립(가명)이라는 교수님이 눈에 띄었다. 라디오 팟캐스트를 진행한다던 이분은 대단한 달변에다 무대 체질이라, 그날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이 여러 번 폭소를 터뜨렸다. 학과 연말 파티에 참석했을 때, 같이 입학한 대학원생들 중 하나가 립을 가리켰다.

“파트너랑 같이 왔네.”

립은 자기 못지않게 흰칠한 중년 남성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옆 학과인 인간중심디자인 및 공학(Human-Centered Design and Engineering)과에도 레이첼(가명)이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짧은 머리에 반삭을 하고 남방과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 그분 역시 파트너가 여성이었다.

교수님들의 가정 배경 역시 저마다 다양했다. 아만다(가명)는 버뮤다 이민자 출신으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셨다고 한다. 휴가 때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새아버지 얘기

를 꺼내시곤 했다. 함께 논문을 썼고 수업 조교를 했으며 지금까지 마음 속의 은사님으로 모시는 조앤(가명)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싱글 대디다. 오래전에 이혼한 아내와는 친한 친구로 지내며 함께 딸을 돌보다가, 내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이 결혼을 했다. 이 모두가 다 같이 점심을 먹거나 편하게 오가는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로, 정상 가족 외 다양한 가정 배경은 전혀 흠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분들의 학자적 역량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혹시나 위 문단을 읽으며 의아함을 느꼈다면, 그 느낌이 맞다.

‘조앤인데 싱글 대디라고?’

조앤은 내가 학교에 입학하던 당시엔 조나단(가명)으로 불렸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었으니까. 조나단은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수님이었다.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이미 학자로서 너무나 출중했고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으며, 보직 교수로서 학과를 위한 서비스 역시 모자람이 없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과 함께 일하며 배우기 위해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그런 그가 마흔이 되던 해 깜짝 선언을 했다. 자신은 사실 여자였다고. 언제나 잘못된 몸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차마

터놓기가 두려웠다고. 딸이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었으며, 사랑해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학과 사람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조나단은 그렇게 조앤이 되었다.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했으며, 수술을 받았다. 힘들거나 속상한 순간이 닥칠 때마다 페이스북에 감춤 없이 털어놓으면 격려와 응원의 댓글이 길게 달렸다.

단 한 순간도 어색함이 없었느냐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하겠다. 잘 알고 지내던 사람 중 성별을 바꾼 이는 조앤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소식을 듣고 난 직후엔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러울지 고민이 되었다. ‘실수로라도 조앤을 조나단이라고 부르면 어떡하지?’, ‘이제 여선생님이 되었으니 뭔가 여성의 삶에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꺼내야 하나?’ 등의 생각이 오갔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내가 성별을 바꿨다면 남들이 날 어떻게 대하길 바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절로 사라졌다. 만일 오랫동안 숨겨 온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가족과 동료와 제자들 앞에 보여 줘야 한다면, 적어도 나라면, 그들이 달라진 내 모습에 지나치게 놀라거나 의식하지 않길 바랄 것이다. 이전과 별다를 바 없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바랄 것이다. 내게 있어, 나는 여전히 나니까. ‘그렇다면

조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고민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마음 편하게 조앤을 대할 수 있었다.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은 아무리 미국에서라도, 심지어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다. 조앤의 곁에는 여전히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나를 포함해. 조앤이 뛰어난 학자이자 훌륭한 인품을 지닌 선생님이란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녀가 남성 이든 여성이든간에.

## 동료들 - 나이와 커리어

박사과정에 함께 입학한 동기들(cohorts) 역시 내게 다양성의 폭에 대해 일깨워 주었다. 한국에서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때는 거의 모두가 나처럼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으로, 개중 절반 이상이 같은 과 출신이었다. 박사과정 중인 연구실 선배들도 30대가 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대체로 비슷한 경험을 한 동년배들끼리 비슷한 진로 고민을 지닌 채 연구의 길로 뛰어든다 하겠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시애틀로 떠난 내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동료들은 경이롭게 느껴졌다. 친절하며 수다스럽고 산타클로스를 닮은 (실제로도 학과 파티에서 산타로 열연한) 제이크(가명)는 40대 중반으로, IT 매니지먼트 일을 하다 아내와 함께 시애틀로 이사를 왔다. 멋진 문신이 있고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시원스러운 케이트(가명)는 넷째 딸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다정한 웃음에 조곤조곤한 목소리의 나탈리(가명)는, 자폐가 있는 첫째 아들이 사회에 나가 스스로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갈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 나탈리로부터 ‘자폐(autism)’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인 ‘신경학적 다양성(neurodiversity)’이란 말을 그 때 처음 배웠다.

새로 입학한 열세 명 중에서 내 또래는 네다섯 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한동안 살아 본 어른들이었다. 학교 밖에서 저마다 다른 경험을 쌓으며, 새롭게 생겨난 각자의 고민과 소망을 풀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이다. 이들의 지도 교수 중엔 나이 지긋한 노교수도 있었으며, 갓 임용된 30대 후반의 교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도 교수가 얼마나 학생과 손발을 잘 맞춰 가며 연구 주제를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20년대에 접어들며 다소 누그러진 듯하지만, 나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통념이 한 번에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대학 새내기들끼리 한두 살 차이로 군기를 뽐뽐하게 잡는다든가, 상사보다 나이가 많으면 승진하기 어렵다든가 하는 등의 얘기들이 잊힐 만하면 들려온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이가 너무 많으면 한국에 돌아갔을 때 임용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유학 나온 학생들 사이에서 어쩌다 한번씩 오래된 괴담처럼 떠돌곤 했다. 교수진과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애매’해진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빨리 학위를 마치고 때 잘 맞춰 얼른얼른 파릇파릇한 조교수가 되자, 으쌰. 이런 관점이라면 나와 같이 입학한 동기들의 미래 커리어에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그 나이에 학위를 마쳐도 임용해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선 꽤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라고. 함께 일한 교수들 중 한 명인 엘라(가명)는 워싱턴주립대 타코마(Tacoma) 캠퍼스의 부교수다. 프로필 페이지를 볼 때 학부를 졸업하고 16년 후 인간중심디자인 및 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 교수로 부임했을 때는 적어도 40대 중반이었던 셈이다. 한 학년 위의 동기인 스티브(가명)는 현재 영국에 소재한 앨런튜링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의 펠로우로 근

무하고 있다. 의지할 수 있는 어른다운 사람으로 동기들에게 평판이 좋았던 그 역시 중간에 커리어를 바꾼 케이스였다.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다가 40대 중반에 기술 및 정보 윤리라는 관심사를 좇아 박사과정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그러니 재작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을 무렵엔 이미 50대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엘라와 스티브, 그리고 같이 입학한 내 동기들은 마치 바다 건너에 버티고 선 등대와 같아 그 존재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을 환하게 밝혀 준다. ‘반드시 나이에 맞춰 인생의 방향을 정할 필요는 없어,’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러 떠나는 것만큼이나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진심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강력한 해방감이 찾아든다. 물론 세상의 모든 커리어가 이와 같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만은 공부를 시작한 그때의 나이가 흠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니까. 모두가 똑같이 20대 중반부터 학위과정을 달려서 30대 초중반에 끝내야만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간혹 UX 리서치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찾아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묻곤 한다.

“꼭 대학원을 가야 할까요?”

“지금 석사를 받아야 할까요?”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대답하곤 한다.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때가 왔을 때 하세요.”

## 학생들 - 인종과 언어

타지에서 공부하며 어려운 순간은 많고 많지만, 개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 강의하기가 아닐까 싶다. 영어도 어려운데 그 영어가 모국어인 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줘야 한다니! 혹시나 실수하지는 않을지, 또 무시당하지는 않을지, 생각만 해도 내장이 목구멍으로 올라올 일이다.

그 점에서 나는 운이 좋았다. 학과에서 성격 좋고 포용력 있기로 유명한 리즈(가명)와 함께 인생 첫 강의를 반반씩 맡아 진행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리즈는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온 노련한 선생으로, 유쾌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다.

“만일 가르치다 실수를 하면 학생들에게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걸로 많은 게 해결되지.”

그렇게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미국인 학생 가르치기가 시작되었다. 여름 학기 첫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을 바라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물론 백인 학생들도 있었지만, 동양인이나 혼혈 혹은 하와이인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워싱턴주 서쪽에는 동양계 미국인 인구가 유독 많은 편인데, 동아시아 국가들과 하늘길이 가장 가까운 미국 본토의 도시가 시애틀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도시마다 달라서, 가령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인구의 40% 정도가 흑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미국인의 얼굴은 다양하다. 때문에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인이 아닐 거라 단정 짓는 일은 큰 결례다. 설령 눈에 보이는 얼굴이나와 참으로 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얼굴의 주인이 자라온 배경과 삶의 방식과 마음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를 테니까.

잘된 날도 영 안 된 날도 있었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꾸역꾸역 수업을 해 나갔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내 영어를 들먹이거나 지적하지 않았고, 예상 외로 잘 따라와 줬다. 학기 말 평가에서는 좋은 코멘트도 제

법 받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백인 학생이 주류를 이루는 학교에서 동양인 선생이라는 이유로 무례한 일을 당한 에피소드 몇 가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여졌다는 기분이 들어 기쁘기도 했던 것이었다.

이후 조앤과 함께했던 조교 수업(teaching practicum)은 그 이상으로 ‘나도 나쁘지 않은 선생이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본래 선생 노릇을 싫어할뿐더러 학생과 대면하는 것도 고역이라 여겼지만, 강단에 서고 질문에 답하고 서면이나 면대면으로 피드백을 주며 타지의 학생들과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훌륭한 공부였다.

워싱턴주립대에 다니는 동양계 미국인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민 1세대나 1.5세대를 부모로 두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영어가 서툰 부모님을 곁에서 보며 자랐을 것이다. 비록 영어가 능통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은 많은 일을 매일매일 위대하게 해낸다. 부모로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의 안위를 책임진다. 그런 모습에 익숙하다면 매번 관사 빠진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조교에 대해서도 역시 영어가 유창하지 아닌지 여부 하나만으로 단순히 판단하지는 않았리라. 비슷한 맥락에서, 타국에서 온 친구나 지인을 사귄 기회를 거의 갖

지 못한 채 백인 부모 밑에서 자란 백인 학생이라면 자기도 모르는 새 ‘낯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한번 비슷한 맥락에서, 위의 ‘백인’을 ‘한국인’으로 바꿔 보자. 한국에서 나고 자란 경우 일터나 학교 등지에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과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며 지낼 기회는 매우 드물다. 적어도 2010년대 이전엔 그러했다. 티비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창한 한국어로 의견을 개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산낙지를 맛보는 외국인의 모습에 넋을 잃거나 경탄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잘 연출된 이미지일 뿐이다. 게다가 그 좋은 모습으로 출연하는 외국인의 대다수는 선진국 출신의 백인이다. 매체에 나올 정도의 유명인이 아닌 개발도상국 출신의 유색인종은 대체로 한국인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으며, 어쩌다 일상에서 언급될 때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이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따라붙는 것을 본다.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선생을 무시하는 백인 학생의 얘기에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하지만, 한국어가 서툴면서도 한국인 학생을 가르치려는 필리핀 선생을 앞에 둔다면 우리는 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

다양성은 단순히 서로 다른 이들과 부대끼는 것 그 이상의 개념이다. 한 사람의 언어나 생김새가 그의 본질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전 과정이 거기에 담겨 있다.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선생으로 인정하고 대해 주던 학생들은 내게 다양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선생이나 다름없었다.

## ■ 소수자로서 살아가며 느낀 다양성의 깊이

### 나는 유색인종 여성, women of color

한 사회에서 공식적인 이방인으로 대접받는 건 참으로 독특한 체험이다. 유학길에 오르기 전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전반적인 풍토에 대해 갑갑함을 느꼈고, 2020년대인 지금보다도 훨씬 제약이 컸던 당시에 여성으로서의 삶에 자주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나는 우리 사회의 주류였다. 한국 본토에서 태어나 국적을 획득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이었으니까.

미국에 건너갔을 때, 나는 미국 국적을 지니지도 않았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외국인 중 한 사람이었다. 외국인 중에서도 유럽인 같은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그중에서 다시 여성으로 분류되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 말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이자 학술 용어인 ‘women of color’를 그때 처음 배웠다.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백인은 그 자체로 특권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privileged’라 불렸다. 한 나라의 법으로 온전하게 보호받거나 권리를 누릴 수 없고, 말도 서툴며, 외모도 다르고, 완력마저 떨어지니, 무엇 하나라도 이들과 대등하게 견주어지기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은가?

다행스럽게도, 다양성이 뿌리내린 도시에 거주하며 그 안에서도 학교라는 안전지대에서 생활한다는 건 마치 이중의 완충재를 몸에 두른 것과 같았다. 학교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상 속 크고 작은 다양성을 체화하며 살아왔고, 이들이 내게 보여 주는 정확한 이해심과 사려 깊은 손 내뻐는 그 자체로 연약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 주는 옷이었다. 그러나 방탄조끼를 걸쳤다고 해서 사람이 장갑차가 되지 않는다. 미국 땅에 발을 디디며 새로이 부여받은 소수자로서의 정체성, 이를 내 것으로 온전히 끌어안고 버티며 살아가는 방식을 체득하는 건 오롯이 내 몫이었다.

### 잘 말하는 일 - 거부감을 녹이는 소통의 힘

미국 땅에서 몇 년 넘게 지내며, 미국인들이 영어 아닌 언어로 하는 대화를 거부하게 느낀다는 걸 깨닫고 지레 조심하게 되었다.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가 모국어인 이들에겐, 누군가 말하는데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낯설고 어색한 것이다. 한번은 수업을 마치고 한국인 동기들과 둘러앉아 그 내용을 한국어로 복기하고 있었다. 다른 동기인 케이트(가명)가 멀리서 척척 걸어오다가 우리가 떠드는 걸 보고 눈을 떴을 때 굴뚝 굴리며, “뭐야, 너희들 뭐가 굉장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농담을 걸었다. 워낙에 친하기 때문에 어색한 기분을 솔직하면서도 편하게 풀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지대 밖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일이 벌어진 날, 나는 암트랙(Amtrak), 말하자면 미국의 무궁화호를 타고 포틀랜드로 내려가고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회에서 제 1저자로 논문을 발표할 요량이었다.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이 울렸다. 어머니로부터 온 국제전화였다. 꼭 받아야 할 중요한 전화였기에 누가 들을세라 창가에 바짝 기대어 빠르게 얘기하기 시작한 지 1분이나 지났을까.

“그만 닥쳐! 너희 나라말은 지겨워!”

바로 앞 좌석에 앉은 노란 머리의 중년 여인이 내 쪽을 돌아보며 쌍 소리를 내질렀다.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벌렁거렸다. 반사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내가 폐를 끼쳤나?’였다.

‘그래, 낯선 말로 얘기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터졌네. 내가 저 사 람을 불편하게 했네. 지금 전화를 받지 말고 이따 호텔에 도착해서 다시 걸 걸 그랬나?’

모욕감은 한발 늦게 스며들었다.

‘잠깐, 내가 왜 욕을 들어야 하지? 주변에 소음이 될 정도로 크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신경 써 가며 목소리를 낮췄는데. 한국어로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에 피가 몰려 따끈해졌다. 한국이었다면 지레 전화부터 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이전에 ‘너희 나라말’이란 표현을 들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몸이 굳은 사이 생각은 발 빠르게 스쳐 갔다.

‘이게 대놓고 하는 차별이구나. 눈이 마주치면 인상을 쓸까? 아니면 내릴 때 즈음 뒤통수에 욕이라도 해 줄까? 그렇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기분은 더럽지만 참고 넘기는 걸로 끝낼까?’

그리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지 않았다. 어쩐지 상대의 마

음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기분이었다. ‘알아듣지 못하니 불안하고 불쾌하다. 아마 영어를 못하니까 저렇게 자기네 나라말로 떠들고 있겠지. 이 나라에까지 넘어와서 다들 쓰는 말을 배울 노력은 않고 웬 유세람? 기분 나빠. 이 동네는 저런 동양인들 천지인 게야.’ 여기까지 생각한 순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깨달았다.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기기까진 조금 시간이 걸렸다. 멀리 앞쪽의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앞 좌석에 잠시 멈춰 섰다. 몸을 낮추고 중년 여인과 눈을 마주쳤다.

“마담, 죄송합니다. 당신의 안녕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 왔어요. 어머니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셔서 꼭 한국어로 얘기해야만 했어요. 당신이 시끄럽다고 화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it was hurt).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답게 최대한 예의 바른 말투를 구사했다. 건너편 자리에 앉은 금발 남성이 흘끗 쳐다보았다. 중년 여성의 입에 서서히 겸연쩍

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듯 손을 뺀 내 어깨를 친근하게 툭툭 쳤다. 나도 미소 지어 화답하고 내 자리로 돌아갔다.

모욕에 대해 항의하거나 화를 내고 싶진 않았다. 다만 그 순간을 깨고 나와 내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후회할 것 같았다. 내가 무얼 느꼈는지 분명하게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 중년 여인이 또다시 길거리나 버스에서 동양인을 마주친다면, 냅다 소리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이 순간을 떠올리기를 바랐다.

그녀가 내 처지를 정말로 이해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상대의 눈을 응시하며 영어로 말을 건 순간, 나는 말 못 하는 검정 머리 원숭이에서 벗어나 그녀와 대등한 ‘인간’이 되었다. 상대가 내게 익숙하지 않을 때, 대등하게 소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저도 모르게 가혹해진다. 상대를 단지 낯선 덩어리처럼 느끼며 존중심을 잃는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으니까.

나와 다른 성 정체성, 세대, 인종, 언어는 그 자체로 낯설다. 낯선 대상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한때 일본에선 표류해 온 백인을 가리켜 붉은 얼굴에 길쭉한 코를 가진 괴물이라 하여 ‘텐구’로 묘사했던 것처럼. 이처럼 다양성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녹

이는 건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대낌이다.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를 주고받고, 상대가 나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는 소소한 순간들이다.

## 잘 듣는 일 - 이해를 기르는 건 정말 '모두'의 몫

소수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서로의 다양성에 정통한 건 아니다. 흔히 차별받는 입장에 서면 다른 차별받는 입장에 더 잘 공감할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내가 소수자라는 사실에만 압도 당해 다른 소수자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공감하지 못했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잘못 믿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도시에서 20년을 살아온 동양 여성과, 지속적으로 IS의 위협을 받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20년을 살아온 중동 여성은 둘 다 'women of color'에 속하면서도 각자의 인생 경험은 자전거와 물고기만큼이나 다를 것이다. 하물며 그 외의 다른 다양성에 있어서는 어떨겠는가?

이번에 소개할 에피소드의 무대 역시 포틀랜드다. 위의 기차를 타고 무사히 학회에 도착해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보통 학회에서는 자기 발표 외에도 이런저런 세션을 청강하는데, 전에 함께 일했던 타코마 캠퍼스의 엘라(가명)가 발표 및 사회를 도맡은 세션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한 방에서 여러 연구 팀이 발표를 진행했는데, 맨 마지막 발표의 주

제가 퀴어<sup>1)</sup> 이론과 디자인 교육이었다. 발표 후 토론이 이어지며, 어린 시절부터 퀴어라는 개념을 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로 흘렀다.

문득 고등학교 때 읽었던 어슐러 K. 르귄(Ursula Kroeber Le Guin)의 『어둠의 왼손』이 떠올랐다. 소설의 주인공 중 하나가 ‘게센’이라는 행성 출신의 양성인인데, 이들은 한 달 주기로 본인의 성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지난달에는 남자였다가 다음 달에는 여자라니! ‘생김새나 목소리도 매번 달라지나?’, ‘아이를 낳을 땐 엄마였다가 키울 땐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건가?’ 당시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아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굴러보며,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모습을 그려 나갔다. 조나단이 조앤으로 변모했을 때도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소설 속 주인공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 얘기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 별생각 없이 입을 열었다.

1) 퀴어(queer)는 ‘이상한’, ‘기묘한’, ‘수상한’ 등의 뜻을 지닌 영어 단어로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모욕과 경멸을 담은 표현으로 활용되곤 했다. 이후 1980년대 미국의 성적 소수자 활동가, 연구자, 예술가들은 퀴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전유하기 시작했다. 퀴어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무성애자(asexual), 정체성을 탐색하는 이들 등 성적 소수자 전체 또는 당사자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퀴어*. 한국성적소수자사전. [http://ksccr.org/xe/board\\_yXmx36/16257](http://ksccr.org/xe/board_yXmx36/16257)

“제가 예전에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성별이 한 달마다 바뀌거든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발표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런 눈빛은 살면서 처음 봤는데 등골에 전율이 흘렀다. 어떻게 허둥지둥 말을 마쳤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공저자가 대신 대답하는 동안 발표자는 미동도 없이 입을 꼭 다문 채 나를 계속 쏘아보았다. 답변이 끝나자마자 엘라가 박수를 짹짹 치며 세션의 마무리를 알렸다.

모두 웅성거리며 일어서는 와중에 내 마음은 황망함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왜 발표자가 화를 내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랐지만, 그 눈빛은 분명 모욕을 당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짧은 영어라 민감한 내용을 섬세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탓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입을 열었던 건, 나 역시 ‘같은’ 소수자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잠깐이나마 내가 성소수자에 대해 잘 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내 안의 내가 반문했다. ‘잠시나마 조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알고 지냈다고 해서, 시스젠더<sup>2)</sup>인 내가 너무나 다양한 성소수자와 그들의 삶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니? 모든 성

---

2) 시스젠더(영어: cisgender)란 자신이 타고난 ‘지정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동일하다.’ 혹은 ‘일치한다.’ 고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C%8A%A4%EC%A0%A0%EB%8D%94>

소수자가 트랜스젠더인 것도 아니잖아.’

공저자가 문을 나서는 게 보였다. 늦기 전에 달려가, 내가 잘 몰랐다고, 혹시나 무례했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다행히 그녀는 내 사과를 받아들였고 괜찮다며 나를 다독였다. 덕분에 마음의 짐이 약간 덜어졌다. 학교로 돌아와 이 얘기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교육받은 게이’인) 케이트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제일 무서운 게 교육받은 게이라니까. 너 잘못 건드렸어.”

그러게 말이다. 한국에서 기십 년을 보낸 이성애자가 어찌 미국에서 태어난 성소수자를 알겠는가?

이 에피소드는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 신호등 노릇을 한다. 단순히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때문에 내가 아는 딱 그만큼으로 상대의 전부를 단정 짓고 있는 건 아닌지,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오만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노란불을 켜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 ■ 마치며 - 다양성의 폭과 깊이가 주는 힘

지금까지 시애틀에서 만난 이들을 지켜보며 혹은 직접 겪으며 느낀 다양성의 폭과 깊이에 대해 얘기했다.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역량을 인정받는 전문가를 지켜보는 기쁨을, 나이가 반드시 커리어의 족쇄는 아니라는 해방감을, 그리고 서툰 영어 저편의 내 모습을 인정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겪으며 안타까움을, 짧은 경험만으로 나와 다른 소수자를 이해한다고 잘못 믿었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모든 기억은 지금까지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의 일부가 되었다.

낮선 세상에서 대등하게 소통했던 경험, 낯선 이방인으로서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수용됐던 경험은 죽을 때까지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보물이다.

한국을 세상의 전부로 알던 시절 도저히 바꿀 수 없을 듯한 여러 고

정관념이며 사회적 통념 앞에 좌절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그런 통념이 단지 다양한 믿음과 견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기울여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걸 상기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는 잠시나마 그 일원이었던 내게도 스며들어 힘이 되어 준다. 이러한 문화의 힘 덕분에 지금도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이들이 시애틀에 남아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며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 사회가 다양성에 열려 있을수록 그 사회 구성원은 서로에게 더욱 더 수용되고 배려받으며 인정받는다. 나를 변모시켰던 보물 같은 경험들을 앞으로의 한국에서도 보다 많은 이들이 겪을 수 있기를 빌며 이 글을 마친다. \*



자기다움과 안전한 공동체,  
그리고 공감 교육

## 박보혜

앰파씨 대표

## 서현선

진저티프로젝트 이사

## 신현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40

---

“각 도시에 어울리는 주제어는 뭘까?”

런던은 ‘답답하다’, 스톡홀름은 ‘순응’, 뉴욕은 ‘야망과 공해’.

이내 질문은 주인공을 향한다.

“너의 단어는 뭐야?”

“나는 작가야.”

“그건 너의 직업이잖아. 그거 말고 진짜 모습 말이야.”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주인공처럼 이 글을 읽는 우리도 나의 진짜 모습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글썸...’라는 생각부터 들지 않을까?

최근 ‘자기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자기답게 살라고 외치고, 회사 면접장에서도 자기다운 인재를 찾는다. 자기다움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무언가여야만 할 것 같고, 청년들은 또다시 ‘자기다움’을 찾아내고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로감에 휩싸이고 있다. 대체 나답다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다.

“여기에서는 내가 뭔가를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의 고유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길 것 같은 느낌, (나만의 무언가를 정리해서 말하기 위해) 너무 힘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참가 학생 A

우리는 이 학생의 말에서 진짜 나답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삶은 다 고유하다. 그렇다면 나다움,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표현하는 그럴듯한 몇 단어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낯것의 나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이야기가 특별히 색달라서 고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언제 나의 이야기를 가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까?’

“나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내게 되니까, 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약간 긴장되고 무서워요. 심장 소리가 쿵쿵쿵 쿵하고 들려요. 그런데 ‘나 이거 기분 좋게 이겨 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말할 수 있네?’ 여기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참가 학생 B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건강한 공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하며, 내 곁의 ‘타인’을 공감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를 향한 공감으로 확장된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본 사람이 타인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공감은 솔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다양성으로 존중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공감을 통해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라는 감각을 계속해서 일깨우면서 비로소 나를 감싸던 긴장감을 내려놓고 나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제야 다양성의 꽃밭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 Inclusion)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공감’ 그리고 공감에 기반한 ‘안전한 공동체’는 조직 문화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핫한 키워드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공감을 교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사랑이 그러하듯, 공감 역시 지식의 전달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공감의 방법을 습득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공감을 교육하는 사람들로써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21년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수업에서의 사례를 위주로 다뤄 보고자 한다. 대학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 조직 문화를 고민하는 조직에서 이 사례가 좋은 영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공감을 수업하다: 사회혁신 공감 수업의 실제

박보혜 앤파써 대표

## 장르가 다르다\_공동체로 움직이는 교수들

진짜 세계와의 연결  
Real World Learning

N개의 배움  
Everyone a learning-designer

나에 대한 탐구  
Exploring 'myself'

#이수업은뭐지 #장르가달라달라 #세계관에진심인편

신현상/ 진짜 교수, 이 판을 만드신 분

서현선/ 어찌다 교수, 프로N잡러

박보혜 / 교수보다 더 교수같은, 공감천재

창업을 했다.  
대표이거나 대표였다.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진심이다.  
커리어에서 큰 전환점이 있다.  
새로운 길을 일단 간다.  
이왕이면 협업한다.

#우리부터협업한다 #일로만난사이 #캐릭터를소개하지

2021년 9월의 어느 날. 한 학기 동안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수진 세 사람이 자기소개를 한다. 한양대학교/임팩트트리서치랩의 신현상 교수, 진저티프로젝트의 서현선 이사, 그리고 앤파씨의 박보혜 대표. 각자 가르치는 내용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셋이 같이 팀으로 진행을 한다. 세 사람이 주거나 받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것이 수업인지 토크쇼인지 헷갈릴 정도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과는 장르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동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또한 안전한 공동체로 움직였다. 수업 중간중간 서로의 마음을 메신저로 나누면서 응원하고, 수업이 끝나면 꼭 함께 회고를 했다. 대학에서는 처음 수업을 진행하는 나에게 특히 이러한 환경은 큰 안정감을 주었다. 물론 이미 나의 모든 취약성을 알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취약성과 공동체성

나는 완벽주의가 심각한 사람이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맡은 바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라고 생

각했었다. 실수를 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면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자책을 많이 했다. 그 마음이 깊어져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쯤 임팩트리서치랩과 진저티프로젝트 식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의 약해진 마음을 보고서도 나약한 대표라고 비난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공감해 주고 내가 계속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왔다.

괜찮지 않아도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나에게 ‘중증 괜찮아요 병’이라는 병명을 붙이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보혜 님은 아직 함께 일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맡은 바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동료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보혜 님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예요.”

한마디로 취약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때는 임신 후 입덧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는데, 계속해서 나의 상태를 집요하게 묻는 통에 그들 앞에서는 나의 힘듦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렇

게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약함까지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수업 첫 시간,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며 공동체가 된 것처럼 학생들에게도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멋지고 빛나는 이야기가 아닌, 나의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어쩌면 찌질하고 짠 내 나는 이야기 말이다. 그것은 앞으로 학생들이 본인의 삶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취약함을 내보이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막상 30분가량 소요된 자기소개를 끝내고 나니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쉬는 시간에 이런 나의 마음을 교수진과 공유하고 공감을 받고 나니 1차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그 힘으로 쉬는 시간이 끝나자 학생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나니 발가벗겨진 기분이 든다”며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오픈했다. 그 순간 학생들은 저마다의 반응으로 나를 응원해 주었고, 나의 마음도, 우리 사이의 공기도 한층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취약성에 대해서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많은 경우 신뢰나 취약성을 마치 단단한 땅 위에서 미지의 세상으로 뛰어 넘어가는 것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먼저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뜻이 말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과정은 거꾸로 진행된다. 취약성은 신뢰에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행한다. 미지의 세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약할 때, 견고한 신뢰의 기반을 쌓아 올릴 수 있다.<sup>1)</sup>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서로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솔직함이다. 그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는 또 다른 이들의 용기를 촉발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 취약함을 먼저 드러낸 한 사람의 용기

깊은 공감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공감 실습을 할 때 본인의 사례(예를 들면, 내가 후회하고 있는 일)를 이야기하면, 나머지 서너 사람이 그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때

---

1) 대니얼 코일. (2018).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박지훈 옮김).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원서 출판 2018), 125.

공감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어디까지 솔직해져도 되는지를 고민한다.

‘사회혁신 공감 실습’ 수업에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다.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온라인 환경상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글 스프레드시트(Google Spreadsheet)의 워크시트(Worksheet)를 활용해서 그곳에 학생들이 자신의 사례를 적으면서 실습하도록 했다. 곤잘 잘 써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1/3 가량 되는 학생들은 자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동료들에게 약점을 잡힐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쉽사리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의 자원을 받아 공감 시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좀처럼 쉽게 자원하기 어려워하는 그때 침묵을 깨고 한 친구가 자원에 나섰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후회하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때 본인이 느꼈던 느낌과 중요했던 욕구를 함께 찾아보는 공감을 진행했다. 그 학생의 고민은 본인에게 꽤나 무겁고 어려운 일이었고, 모두가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 꺼내 놓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진솔하게 내면을 털어놓은 시연이 끝나고 나자 학생들

사이에 감도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교육자인 내가 취약성을 드러냈던 것과 동급생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때까지 본인의 사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던 학생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낸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준 것이었다. 그날의 성찰 과제(reflection memo)에는 시연을 보고 자신 또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음을 언급한 학생들이 꽤 많았다.

“걱정, 불만, 후회 등과 같은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나의 약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 조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주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참가 학생 C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커다란 한 걸음이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로부터 비난이나 조롱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라고 온전한 공감을 받게 될 때 나의 내면에서는 치유가,

우리 사이에서는 두터운 신뢰와 안전감이 자리하게 된다. ‘여기에선 솔직해져도 된다.’라는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단순히 ‘같이 수업을 듣는 사이’에서 ‘친밀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다.

### 신나게 무슨 이야기든 떠들어도 괜찮아

공감 실습 수업에는 ‘체크인 공작단’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다. 서로 편하게 대화하며 마음의 장벽을 깰 수 있는 체크인(check-in)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그날의 수업을 통해 깨닫거나 배운 점들을 나누는 체크아웃(check-out)으로 수업을 끝맺었는데 이 중에서 체크인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해 보는 학생들의 자원 모임이었다. 학생 D도 이 체크인 공작단이었다.

“저는 스무 살 이후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동안 만나 온 사람들과 무탈하게만 지내고 싶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마음도 놓이지 않고 사실 무서웠어요. 처음에 이 수업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래 마음이 아팠던 기사문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미처 다 적지 못하고

그냥 ‘...’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적으면서 생각했죠. 이렇게 대충 적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겠구나. 그런데 우연히 공작단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사람을 볼 때 충분히 마음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안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또 공감 실습에서 만난 친구들은 이상하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오래 보고 싶고요.”

체크인 공작단은 흡사 수다 모임과 같았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반부터 교수진과 체크인 공작단 친구들이 모였다. 필수는 아니었고 그냥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였다. 한 시간가량 아주 신나게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그럼 이번 주에는 이 주제로 체크인을 진행해 볼까?’가 정해졌다. 그날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추억 속 소울푸드(Soul Food)는 무엇인지 등등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었고, 모두 배꼽 빠지게 웃었다.

학생 D는 이야기했다.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다고. 원래 외향적이고 도전하길 좋아했던 D이지만,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오면서 많이 위축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더 메말라 버린 마음에 단비 같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나도 더 표현해 보고 싶다, 뭐든 더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을 많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제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세상에 놀러 갔다 오니까, ‘재밌는 세상이 있구나. 나도 가 볼래! 내 세상을 넓혀 볼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생산성에 대한 강한 환상이 있는 것 같다. 시간을 쓸 때에도, 대화를 나눌 때에도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쓸데없는 수다는 시간만 잡아먹는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론부터!’를 외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이야기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부터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뭔가를 더 하고 싶다는 ‘동기’가 만들어진다.

정말로 여기에서는 아무 이야기나 해도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뭔가를 잘 말해야 한다는 평가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수업 시간에 공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 충분한 자기 공감은 나를 사랑하게 하고, 타인을 공감할 마음의 여유를 준다

수업은 공감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는 전반부 8주와 배운 공감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사회문제의 당사자들을 인터뷰하는 후반부 8주로 구성되었다. 전반부의 절반은 나 자신을 공감하는 것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할애했다. 그만큼 자기 공감이 타인 공감, 사회 공감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공감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레 ‘타인을 공감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공감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낯설고 새로웠다. 그만큼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다. 특히 오늘날의 청년들은 평생에 걸친 심한 경쟁과 비교 가운데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고, 가혹하게 구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나 자신에게 공감한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나를 채찍질하기만 했지, 나를 이해해 보려 한 적은 없었다. 타인에게는 관대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엄격했다. 그런 나에게 자기 공감 실습은 나 자신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해 주었다.”

이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 수업에 참가한 대다수 학생들의 고백이다. 학생들은 첫 한 달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후회되는 일’, ‘분노했던 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 등을 주제 삼아 본인의 내면을 느낌·생각·욕구·신념이라는 세밀화된 층위로 면밀히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공감하는 연습을 했다.

스스로에 공감한다는 것은 본인이 발견한 마음에 물음표(?)를 붙이지 않고 느낌표(!)를 붙이는 것이다.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랬구나!’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다. 자기 공감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치유를 넘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했다.

“지금까지 후회했던 일과 그때 들었던 죄책감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고, 스스로에게 족쇄처럼 만들어서 살아왔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더 희생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나 자신에게 많은 제약을 가했다. 이제는 그런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내가 하는 일에 자유를 주려고 한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참가 학생 F

누구나 제대로 된 공감을 받으면, 내면에 일종의 여유 공간이 생기

게 된다. 우리는 비로소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학생들은 4주간의 자기 공감 실습 후에 비로소 서로를 공감하는 타인 공감을 실습했다.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공감이라 생각하며 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공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공감은 잔뜩 힘을 주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었는데 진정한 공감은 쌍방으로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몸으로 알아 버린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의 관계에서 계속 공감을 실천하고 싶어졌다.

“나와 친구는 항상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대화만 해서 감정 자체에 대한 것은 대화 주제로 삼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타인 공감 실습 후) 고민을 이야기하다 친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니 서로 벅차오르기도 하였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그 자체로 공감이 가진 힘에 놀랐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참가 학생 G

“투닥거리기만 했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동생에게 수험 생활의 힘들에 대한 공감을 한 것은 아마 내가 동생에게 태어나서 처음 한

공감일 것이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더 열심히 공부하는 동생을 보며, 공감은 나와 내 주변의 관계를 진정으로 연결해 준다는 것을 체험했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참가 학생 H

## 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기 공감과 타인 공감을 통해 공감이 가진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감이 너무 좋은 것이기에 ‘언제나 공감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기 쉽다. 공감을 교육하는 나에게도 종종 “너는 당연히 나를 공감해 줘야지!”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그러나 내겐 내 마음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공감 역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만큼만 공감해도 된다. 나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한 제1의 원칙이다.

학생 I는 자라 온 환경적으로나 성향적으로도 공감력이 높은 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가족,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예전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 죄책감을 숨기려고 오히려 더 잘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그들과 거리를 뒤편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하나 그래요.”

학생 I의 이야기를 듣는데 나의 과거가 떠올랐다. 내가 공감을 배우기 전까지 나를 움직여 온 에너지 또한 ‘죄책감’이었다. 마셜 로젠버그(Marshall B. Rosenberg)는 그의 책 『비폭력 대화』에서 이러한 상태를 ‘정서적 노예 단계’라고 말한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잘 살피지 못한다. 빈번히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 나의 욕구를 뒷전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왜 내 욕구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지?’하는 피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진다. 심지어 이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다.<sup>2)</sup>

“새벽에 과제를 하다가 딱 깨달았어요.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들에서도 사실 누리고 있던 것들이 있구나’라고요. 가족에게서 독립하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 다른 데로 가면 불안하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없음을 사실 가족한테 투영하고 안정을 누리고 있던 것처럼요. 내가 하기 싫다고 생각한 선택들도 사실은 제가 뭔가를 얻고자 했던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택의 힘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은 가벼워진다.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으로 인해 움직여 왔던 삶이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가벼워지니 타인에게도 가벼워진다. 남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마셜B. 로젠버그. (2015). *비폭력대화*(캐서린 한 옮김). 서울: 한국NVC센터. (원서출판 2015), 100-104.

이 깨달음은 공감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소위 ‘좋은 일’을 한다는 사람들, 사회혁신/비영리 섹터(sector)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를 올바르게 바꾸겠다는 좋은 신념이 강할수록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건 꼭 해야만 해”라는 강요를 하기 쉽다.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너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혹독하고 폭력적으로 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이러한 마음에서 기인한다. 10년 이상 사회혁신/비영리 섹터에 종사하면서 이 섹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건강한 공감을 교육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 공감 경험의 확장: 그들만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서현선 진저티프로젝트 이사

아쇼카(Ashoka)의 창립자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은 사회혁신의 세 가지 요소로 공감과 창의, 협력을 강조했다. 공감이 사회혁신에 있어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직관적이다. 누군가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나와 관련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나와 관련 있는,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더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배격하기 쉬운 이 시대에 공감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개개인의 깊숙한 감정과 욕구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뉴스에 나오는 소외된 사회 구성원, 혹은 정말 가까이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렵지만 일일이 헤아려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

자체로 정말 값진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참가 학생 J

자기 공감 실습과 타인 공감 실습을 마친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의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공감하기 위해 이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및 방법론에 대해선 많이 배워 왔지만, 인터뷰 기획과 실행까지 병행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공감은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 없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을 때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들은 학기 후반부에 온전히 인터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주기로 했다.

수업의 전반부를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친구들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험한 학생들에게 우리는 수업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즉 사회 혁신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기를 버리는 엄마들을 위한 베이비박스 문제를 해결하는 비투비의 김윤지 님, 무업 기간을 지나는 청년들(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니트컴퍼니의 전성신 님,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후미디어허브 주선영 님, 사회 혁신가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카카오임팩트 전경호 님을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회문제들과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변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와 현재의 고민들을 듣는 시간은 수업의 전반부와는 확연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였다. 전반부의 수업 경험이 나,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내가 이전에는 그리 관심 없었던 낯선 대상에게까지 나의 시선과 관심을 확장하는 시간이었다.

결국 공감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공감을 통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고민들이 사실은 사회의 흐름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대상과 주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연결성과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체감하고 ‘우리’라는 원을 좀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는 How보다는 Why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어떤 이론이나 방식을 활용하여 어떻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진 않았다. 다만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 먼 이야기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 내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후 문제나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수업을 듣기 이전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베이비박스나 니트족 등 내가 관심 갖지 않았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왜 체인지메이커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지금까지 다양한 수업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현장을 방문하여 체인지메이커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맺어 내는 결과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는데, 결국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공감을 배우는 수업의 마무리는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는 공감을 배우는 과정이 수업 너머의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싶었다. 수업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한 경험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찾고 싶었다. 또한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공감을 확장하는 방식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실험하고 싶었다. 비록 이 수업의 공식적인 마무리는 평가와 학점일 수밖에 없지만, 이 수업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남겨야 하는 흔적은 학생들에게 쉽게 잊히기 어려운 경험과 시도여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가 시도한 팀 프로젝트 과제는 4개의 주제-20대의 마음 건강, 코로나와 취약 계층, 환경과 기후변화, 새로운 미션들과 일터-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와 연관된 사람을 만나 공감하고 이 경험을 콘텐츠로 남기는 것이었다. 이 과제의 핵심은 지식이나 이론을 리서치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사람과 현장을 찾아가 실제적인 만남과 대화를 경험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 형태로 결과물을 자유롭게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다.

교수자인 내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낸 과제이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사람과 현장을 찾아가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수업의 과제라는

평가의 압박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팀플을 할 때 흔히 벌어지는 갈등이나 불신의 분위기를 이겨 내고 팀원 간에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했다. 그런 수업의 가능성을 나 자신이 먼저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 더 솔직한 마음이라.

“우리 팀은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 장애인 보호자분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느끼셨을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동안 받아 왔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그나마 따뜻하게 챙겨 주었던 이웃분들도 어느새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참가 학생 L

놀랍게도 학생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움직였고, 더 깊은 대화를 만들어 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대상, 발달 장애인의 보호자분을 만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들이 겪은 일상을 듣고 오기도 하고, 자기 주변 친구들의 마음을 묻고 깊게 대화하는 소그룹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어느새 수업은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과제를 보면서 나 역시 공감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감을 통해 경험한 안전함은 창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수업 안에 흐르는 안전함에 대한 감각은 학생들의 개성을 드러내 주는 촉진제가 되었다. 팀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시나리오, 블로그, 잡지 형태의 기사 등 다양했다. 자신들을 닮은 캐릭터를 섬세하게 창조하고 그 페르소나의 블로그를 실제로 만든 학생들의 발표에는 나도 학생들도 감탄을 연발했다.

“이번 ‘청년들의 정신 건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표서정’이라는 페르소나가 또 다른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이겨 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우울한 감정도 인정하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한 프로젝트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에게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 또한 다른 사람과 충분히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참가 학생 M

## 1. 우울한 날들이 만나는 곳

우울한 날들이 만나는 곳

210514 : 조바심. 언제쯤 나는..



행복하고싶은 사랑이  
20시간 전

이웃

얼마 전 준비하던 인턴 채용에 떨어졌다. 결과는 정말...  
허리 오늘 같이 쥐어스터디를 하던 동기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삼성전자에 들어간다고 한다. 축하해줬지만, 가슴이 턱 막혔다.

한 톱 쓰겠다는 친구의 말에 다음에 보자는 기약없는 약속을 하고는 전화를 빠르게 끊어버렸다.  
남들과 달리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무기력하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  
문이 없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문제일까.

앞으로 나아가고 싶는데 자꾸 넘어지지만 한다. 지시감, 자존감 다 바닥을 쳤다.  
왜 내린 이렇까. 오늘따라 오만가지 생각이 다들면서 우울의 감정이 나를 잡아먹는 느낌이다.  
숨막힌다. 언제쯤 하나라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언제쯤 승무원이 트윅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걸까?

#조바심나는 #부러움 #속상한 #조조한 #주눅든  
#도전 #성장 #변화 #자기혁신 #신뢰 #재직인정 #소속감

☆ [ ] 면접 결과 안내

보낸사람 [ ]  
받는사람

안녕하세요.

[ ]입니다.

먼저 저희 [ ] 채용에 관심가지 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어 지원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지원자분의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개인 역량과 [ ]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다고 판단된 결과이니, 더 좋은 기회가 있으실 것이라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하며, 지원자 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들여 채용 과정에서 불만사항 겪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점 역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채용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의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만연으로 만나 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드림.

나를 이해하는 힘을 넘어, 나다움을 표현하고, 나로부터의 공감을 시작하려는 열망은 결코 수업 안에 한정될 수 없다. 공감 경험은 열망을 낳고 열망은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낳는다. 그렇기에 공감을 배우는 수업의 마무리는 새로운 곳으로 한발 나아가게 만드는 시작이어야만 한다.

“일단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 나 자신은 건강한지, 내 주변 사람들은 건강한지에 대해 신경을 쓰는 일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번 수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사람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을 나누고자 노력할 것 같다. 또한 공감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싶다. 공감이라는 것이 어떠한 임팩트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 이를 통해 임팩트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공감 실습' 참가 학생 N

## ■ 글을 맺으며

### 공감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글을 정리하며 앞으로 공감 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교육자는 어때야 하는가?

공감을 교육하는 사람은 본인이 공감을 깊게 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깊은 공감을 받아 본 사람은 또 다른 공감의 관계를 좀 더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공감 교육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수업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공감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경험케 하려면 공감의 경험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이다. 교육자 또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취약성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자는 이미 모든 것을 통달하고 완벽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공감 수업에 있

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환경은 어때야 하는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슨 이야기든 안전하게 나누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유롭게 입을 열며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체크인으로 시작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체크아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오디오가 겹치는 문제로 특정 사람들만 이야기하기 쉬운 온라인의 환경에서도 모두가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패들렛(Padlet)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했다. 소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것 또한 친밀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오프라인이라면 특별히 공간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 테이블의 배치, 음악, 간식과 같은 작은 요소들이 안전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할 때 그라운드 룰(ground rule)을 함께 정하고 시작하며,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처음의 약속을 상기시키면 좋다.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그라운드 룰이 무슨 큰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자신이 직접 한 말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이는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세 번째 평가는 어때야 하는가?

실컷 공감을 진정성 있게 교육해 놓고 나서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로 경쟁적 모드를 가동하면 이 모든 경험들이 가짜가 될 수 있다. 공감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비경쟁적인 가치이다. 평가가 아닌 회고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다. 평가는 공감을 진행하는 주체를 격려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제를 평가 수단만이 아닌 학생들과 1:1로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면 좋다. 우리는 학생들의 과제 하나하나마다 공감의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것 또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공감이길 바랐다. 학생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을 법한 본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과제에서 드러내면서 우리의 진심에 응답해 주었다.

## 수업이 아닌 공동체

수업은 끝났지만 우리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일부 학생들은 종종 우리를 찾아왔고, 그들 중 몇몇은 함께 밀양으로 MT까지 다녀왔다. 이를 통해 수업 때 미처 다 알지 못한 그들의 고유한 색

칼을 알아 가고 있다.

공감 실습은 그들에게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그 변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기나긴 공감 여정의 첫걸음을 막 내디딘 것이다. 지금까지 외면해 온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용기를 얻었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공감 기반 공동체다.

현재 진행형의 공감 여정을 함께하면서 상대의 내면을 반영해 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감 수업은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청년들이 진한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맞본 경험은 그들의 인생에,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이 사회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까? 어느 하나 똑 같지 않았던, 다채로운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진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열굴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

### 김서경

현재 여의도에 소재한 벅크샐러드에서 UX 리서처로 근무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 및 실험심리학 석사를, 일리노이주립대(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심리학 석사를 각각 취득한 후 워싱턴주립대(University of Washington) 정보대학 박사과정에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연구했다.

### 박보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후, 소셜벤처 마리몬드의 창립멤버로 일하다 2017년 퇴사.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건강한 직장 공동체를 만든다'는 미션 아래 교육 및 코칭을 진행하는 소셜벤처 앤파씨를 창업, 현재 대표로 일하고 있다.

### 서현선

아름다운재단에서 5년간 재직하고 프리랜서와 N잡러 등 다양한 형태의 일 경험을 쌓았다. 출산, 난임 등으로 새로운 일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던 예전 직장동료들과 스터디 모임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진터티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Tea Leadership Facilitator라는 직함으로 교육, 연구,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신현상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와 석사,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석사와 UCLA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컬렉티브임팩트센터장, 임팩트사이언스연구센터장, 아쇼카U 체인지리더,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 한국어판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임팩트 측정 및 컨설팅 전문회사인 (주)임팩트리서치랩 대표로 활동 중이다.



## Diversitas List

-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해민
-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 6호 혁신의 산실, 실리곤벨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법법칙인가, 가법법칙인가? \_ 서영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병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어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윤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관찰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디어장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 14호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쫓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인영
-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현정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 16호 생활톤: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_ 조경숙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_ 조은아
- 17호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_ 김승수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_ 김철아
- 18호 장애의 사회·문화적 구성: 다문화 교육과 장애 \_ 조주희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 가치 확실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 \_ 장대익
- 19호 성평등, 교실에 달다: 다양성과 예민함을 배우는 교실 꿈꾸기 \_ 김수진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작하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교육 \_ 황교은
- 20호 사회혁신이란 나무는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내 안의 다양성, 내 밖의 다양성 \_ 이해영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와 다양성의 필요성:  
교육, 복지 생태계를 중심으로 \_ 이의현

21호

세계의 끝 윈더랜드, 책들의 이상향을 찾아서 \_ 백창화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책의 귀환이라는 기현상 \_ 안병일

22호

Behind the scenes:  
2021 고려대학교 다양성 조사와 보고 \_ 김재연  
다양성(Diversity)으로의 변화,  
조직의 다양성 수준을 측정하라 \_ 양윤재

23호

조선 시대 궁중 회화의 다양성:  
조선 후기 궁중의 그림 병풍과 이국 취미 \_ 윤민용  
사공간에 대한 예술가의 세 가지 시선 \_ 신수진

24호

1부 - 강연: D&I의 심리학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이  
역량인 이유에 대해 \_ 김경일  
2부 - 대담: 음악에서의 다양성 \_ 진은숙, 조은아



KU Diversity



새로운 Diversitas 웹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친화적인 e-book 형태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iversitas.kr>

## Diversitas

권호 25호  
발행일 2022년 6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www.saisiot.co.kr](http://www.saisiot.co.kr)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